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군사 분야

김태현 |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 moltke1365@gmail.com

I. 머리말

2026년 2월 19일~25일 개최된 북한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는 지난 제8차 당대회(2021년)에서 제시된 국방전략의 성과를 총화하고, 향후 5년(2026~30)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와 과제가 제시되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의 결정문과 사업총화보고에서 절제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5대 핵심 과업을 조목조목 나열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구체적 정보 공개가 최소화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향후 국방전략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인다.

우선,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군사노선은 대체로 기존의 정책적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정운의 사업총화보고에서도 특기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많이 식별되지 않았다. 일견 북한이 이미 추진해 오던 기존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핵무기 고도화 정책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새롭게 제시된 핵-상용무력(재래식 전력) 병진 건설, 첨단 무기체계 개발, 국경 요새화, 교육훈련과 사상이념 강화 기조도 지난 3년 이내에 이미 추진되기 시작했거나 예고된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북한이 기존의 정책적 관성과 기조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북한의 국방전략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제9차 당대회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 선언을 넘어서 국방전략의 무게중심이 ‘전쟁억제’에서 ‘전쟁수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실전’에 방점을 찍고 핵무기의 실전적 운용, 핵-재래식 병진과 통합,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군사적 구현(국경 요새화와 전방 전력증강), 쿠르스크 파병에 기반을 둔 실전적 교육훈련과 사상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제8차 당대회와 달리 구체적 정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북한 군사전략의 초점이 ‘전력 건설’에서 ‘전력 운용’으로 전환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만 하더라도 핵 및 전략무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강압과 인정을 받기 위해 ‘선전’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과시’보다는 ‘은닉’을 통한 실전적 운용 태세 구축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이 지난해 그토록 강조하던 북러 군사 밀착과 ‘혈맹’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김정은 영도체제를 강조하는 시점에 굳이 북러 관계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는 최근 북러관계 성과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북러관계 밀착이 북한의 향후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간과될 변수는 아니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

이처럼, 제9차 당대회 군사노선의 행간을 분석할 때 북한의 표면적, 선택적 공식 발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제기한 새로운 전략무기만을 분석하는데서 벗어나, 북한이 최근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전쟁억제와 위기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사시 어떤 방법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것인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북한의 국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대내외적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만 비로소 북한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정보의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의도와 계산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글은 제2장에서 제9차 당대회에 나타난 국방전략의 대강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국방·군사 노선이 실전적 전쟁수행 전략과 현대전 교훈을 반영한 전력 구조 개편으로 압축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실전’ 중심 사고의 국방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II. 제9차 당대회에 나타난 국방전략의 대강

2026년 2월 개최된 북한노동당 제9차 대회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 이후 확보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국가 방위 전략을 재정립한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향후 5년간 구현할 국방전략의 목표와 기조는 2026년 2월 26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그 윤곽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 김정은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노선의 정당성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향후 5년의 북한 국방목표가 “어떤 적도 사상 정신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압승하는 세계 최강의 현대화된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국방전략은 ‘자위적 억제력’과 ‘전쟁수행 능력’의 강화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¹⁾ 구체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의 기본 골격은 국가 핵무력, 상용무력(재래식 전력), 교육훈련과 사상의 강조, 국경 요새화, 새로운 5개년 국방발전계획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은 핵무력을 단순한 억제를 넘어 “전쟁수행 전략 실행의 중추”라고 규정하면서, 기존 핵전략을 보다 공세적으로 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을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군 수상·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시하고,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 핵무기 취급 질서와 운용 동작 숙달을 강조한 점은 핵을 더 많이 개발 및 보유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억제에서 실전적 핵 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달라진 능력’에 맞게 다양한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종 연습을 통해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여 ‘임의의 시각과 불의의 정황’에서 신속 정확하게 태세를 갖추겠다고 주장하였다.²⁾ 특히 북한은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보안 및 경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핵무기의 활용 공간 확장이 단순한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기반시설과 운용 환경의 확충을 동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³⁾

둘째, 북한은 핵무력뿐만 아니라 상용무력(재래식)을 현대화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핵·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 능력의 급속한 강화에 주안을 두면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현대화할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⁴⁾ 여기에, 북한은 인공지능(AI)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 전자전 장비 등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한 기술적 도약을 강조하며,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신기술로 만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이 세부적으로 개발해야 할

1)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2)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3) 신범철, 「북한 제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 『세종포커스』, 서울: 세종연구소, 2026. 2. 27.
 4)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첨단 무기체계의 목록을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핵전력 운용에 필요한 “보충적인 타격 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하겠다고 하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지향한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핵무기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타격, 전자전, 정찰, 지휘 교란과 결합한 작전 수행 체계 속에서 실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이와 동시에 북한은 2030년까지 세계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하겠다는 목표하에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 기술력’의 포부를 가지고 핵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계획을 ‘새 5개년 계획’에 담았다. 이것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단순한 성능 개량 차원이 아니라, 우주, 전자기, 무인체계, 지휘통제 교란을 포괄하는 다 영역 작전 전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과제로 지상 및 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 각종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적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비밀병기와 특수한 전략 자산”의 취역,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 첨단 무장 장비의 계열생산이 함께 강조되었다.⁵⁾

넷째, 북한은 교육훈련과 사상 무장을 새로운 국방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적 발전 못지않게 이를 운용할 인적 자원의 ‘사상적 무장과 실전 교육’이 전쟁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군사교육 혁명과 훈련 혁명을 ‘강군건설의 2대 전선’으로 제시하면서 급속한 군사과학기술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주문했다.⁶⁾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러난 드론, 전자전, 분산전, 실시간 정찰 환경에 적응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군의 전투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김정은 중심의 정치적 충성체계가 국방전략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강화가 곧바로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를 의미하기보다는 ‘수령 결사옹위’라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조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대남 군사정책의 차원에서 북한은 ‘국경 요새화’와 ‘집초 공격’을 중요한 국방전략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이후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이를 물리적 국경 차단과 요새화로 연결하였다. 이에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도로 및 철로의

5)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6)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완전한 철거 이후,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규모 장벽과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요새화 작업’을 국방 분야의 핵심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대신 “한국과의 남부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기간 내 요새화하고, 경계·화력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2월 25일)에서 “남부 국경선을 지켜선 군단 종대”를 언급하였고, 김정은은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 ‘즉시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다.⁷⁾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2024년 이후 본격화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군사적으로 고착화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상시적인 적대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한 걸음 나아가 북한은 이미 개발된 신형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도 중요한 군사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600mm 방사포,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종합체를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여 ‘집초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⁹⁾ 이미 당대회 개최 전인 2월 19일, 김정은이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서 50문을 증산해 당대회에 증정했다고 공개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반도 전장에서 대량화력과 전방 타격 수단을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핵심 도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북한의 포병 및 전술미사일 중심의 ‘집초 공격 전략’은 국경 요새화 방침에서 말한 ‘경계체계와 화력체계 보강’의 군사전략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¹¹⁾

이처럼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국방전략에는 북러 군사 관계 밀착 등과 같은 핵심 요소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대강의 정책적 방향은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의 핵심은 신형무기 체계 목록을 몇 개 추가한 데 있다기보다, 북한이 개발한 전력들을 실제 ‘전쟁 수행체계’ 속에 어떻게 결합하고 실전 배치하는지 관한 구상을 밝혔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국방전략은 핵전력의 실전 운용화, 핵·재래식 전력의 결합, 대남 적대노선과 전방 지역 전력증강 배치, 첨단 무기체계 개발, 교육훈련 혁신과 정치통제의 동시 강화라는 다면적 특징을 가진다.

7) 『조선일보』, 「우크라이나 파병부대 앞세우고 열병식… 중앙 연단에 김주애」, 2026. 2. 27.
 8) 김정은, 「노동당 제9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6.
 9) 김정은, 「노동당 제9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6.
 1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 참석 및 연설」, 2026. 2. 19.
 11) ‘집초공격’이란 군사적으로 화력을 집중해 목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집중타격’과 유사한 개념이며, 유사시 방사포 등으로 한국의 전략목표를 타격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핵무기 늘리고 수중발사 ICBM 및 위성 공격 특수자산 개발」, 2026. 2. 26.

III. 분석 및 평가

1. 핵보유국 지위의 고착화에 집중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최상위 안보 전략목표는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 고착화에 있다. 북한은 비확산체제 외부에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군축 협상을 통해 국제 사회의 외교적 인정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이미 2025년 초 미국의 트럼프 2기 신행정부를 향해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핵무력 고도화 불변’의 입장을 각인시켰다. 작년 7월 28일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대미 담화를 발표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변화된 지위와 능력을 주장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였다.¹²⁾ 북한은 8월 “국위, 국제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면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멸된 지 오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을 ‘꿈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¹³⁾ 김정은은 9월 26일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핵물질 생산과 국가 핵 대응 태세 진화 등 북한의 자위적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¹⁴⁾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핵 2격 능력과 대북제재 무력화에 중점을 둔 핵인정 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과 10월 전투 병력 파병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지원과 핵인정 외교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과 전략무기 기술 이전을 통해 핵고도화를 꾀하는 한편, 역내에 조성된 신냉전 질서를 틈타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하려 한다.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중러 정상과 더불어 반미·반서방 연대의 핵심 축임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용인되는 듯한 연출이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핵인정 문턱(recognition threshold)’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북한이 내비친 핵 자신감의 이면에 핵 능력의 취약성에 대한 초조감도 나타난다. 아직 핵탄두 및 핵물질이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핵타격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취약성은 ICBM의 실전 능력(재진입체의

12)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미 담화」, 2025. 7. 29.

13) 『조선중앙통신』, 「방미 중 대통령 발언 관련 조선중앙통신 비난 논평」, 2025. 8. 27.

14)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 핵 관련 분야 중요협의회 진행」, 2025. 9. 27.

재진입 능력과 유도 능력)과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등과 같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생존 가능한 2격 능력(credible and survivable 2nd strike)’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 핵 무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2023년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건조하고, 2025년 5,000톤급 구축함 건조와 핵무장에 이어 8,700톤급 ‘핵추진 전략유도 탄 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하였다. 북한의 핵고도화 노력은 ‘자신의 시간표(own timeline)’에 맞춰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제9차 당대회에서도 재확인된 셈이다.¹⁵⁾

최근 세계 및 지역 정세의 급변은 북한 핵개발 의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특히 제9차 당대회 직후인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Operation ‘Epic Fury’)은 북한의 핵고도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할 것으로 보인다.¹⁶⁾ 북한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 주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위축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¹⁷⁾ 북한이 “이란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라는 결론에 근접할수록 그 결과는 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수렴될 것이다.

2. 실전적 전쟁수행 체계 구축

제9차 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군사 전략적 특징은 ‘실전적 전쟁수행’ 체계의 강화에 있다. 북한은 군사전략의 핵심 축이 ‘억제’에서 ‘전쟁수행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여러 방면에서 암시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은 ‘핵운용 전략의 실전화’이다. 북한은 이미 2023년 ‘핵 전투 무력’을 처음 언급한 이래 전술핵을 전력화하여 분산 배치함으로써 단순한 ‘억제’를 넘어 실제 핵 사용이 가능한 운용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핵의 중심 축이 ‘보유’에서 ‘운용’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화하고, 전술핵 전력화와 운용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재확인한 셈이다.¹⁸⁾ 그런 점에서, 북한은 핵무기 수량 증가 자체뿐만 아니라 핵운용 수단의 다양화, 활용 공간의 확대, 통합된 지휘통제체계의 구축, 시험과 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강조점을 두었다. 김정은이

15) King, Robert., “What the Ninth Party Congress Tells Us About Where North Korea Is Headed.”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6 Feb. 2026. (<https://keia.org/the-peninsula/what-the-ninth-party-congress-tells-us-about-where-north-korea-is-headed/>). Accessed 10 Mar. 2026).
 16) Bernal, Gabriela.,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re Here to Stay.” Lowy Institute, March 6, 2026.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north-korea-s-nuclear-ambitions-are-here-stay>). accessed March 10, 2026).
 17)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26. 3. 1.
 18) 김보미, 「제9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전환: 핵무기 보유에서 운용으로」, 『이슈브리프』, 제810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2026년 3월 10일 최현호 구축함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 운용’과 ‘전략전술적 타격수단의 실용화와 실전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¹⁹⁾

둘째, 북한은 핵·재래식 전력의 병진 건설 구상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은 이미 2025년 9월 “제9차 당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²⁰⁾ 여기에는 2022년 이후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Operation ‘Midnight Hammer’)이 북한군에 적지 않은 교훈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재래식 전력이 중요함을 확인한 북한은 핵뿐 아니라 첨단 재래식 전력 건설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북러 관계 진척에 힘입은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 전력, 해군력 현대화에 집중하였다. 그 성과는 2025년에 가시화되었다. 북한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군 핵무장화, 원양작전 함대 건설, 북러 군사협력 강화 기조를 공식화한 이래 5천 톤급 구축함을 2척 건조하였고, 매년 2척 추가 건조와 8,000톤급 구축함 건조 의지를 밝혔다.²¹⁾ 한편, 북한은 조기경보기와 신형항공기 등 첨단 항공 전력과 반항공 전력을 러시아 지원하에 개발하고 있다. 2025년 3월 북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와,²²⁾ 8월 2종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²³⁾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갑 전력 기반의 지상전 승리가 전쟁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2차 장갑무력 혁명’과 ‘최신식 탱크, 장갑차로 교체’를 강조하였다.²⁴⁾ 나아가, 쿠르스크 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AI 기반 무인 공격기, 전자전 무기체계, 대위성 공격 자산 등 첨단기술 전력을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2025년 3월 25일 북한은 신형 전략정찰 및 자폭형 무인기와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데, 김정은은 “무인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최우선 중시 과업”이라고 언급하였고,²⁵⁾ 9월 18일에도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무인기 계열생산 능력 확대를 강조하였다.²⁶⁾

셋째, 북한은 현대전을 감안한 실전 훈련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서 체득한 드론전과 전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무인기 등 현대전 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5년 2월을 ‘훈련의 해’로 지정하고 김정은이 직접 종합 군관학교를 방문하여 현대전 실전경험 습득, 선진무기와 전투 기재 정통,

19)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2026. 3. 11.

2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 2025. 9. 13.

21) 『노동신문』, 「김정은, 중요조선소 함선 건조사업 현지지도」, 2025. 3. 8.; 『조선중앙통신』, 「남포조선소,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결기 모임」, 2025. 7. 22.

22) 『노동신문』, 「김정은, 미사일총국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 2025. 3. 21.

23)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 참관」, 2025. 8. 24.

24) 『노동신문』, 「김정은, 중요 탱크 공장 현지지도」, 2025. 5. 4.

25) 『노동신문』, 「김정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및 탐지전자전연구집단 지도」, 2025. 3. 27.

26)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사업 지도」, 2025. 9. 19.

현대전 지휘 능력 등을 지휘관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군대의 질적 강화와 실전형 지휘관 육성을 주문하였다.²⁷⁾ 북한은 7년 만에 제7차 훈련일꾼대회(5.14~15)를 개최하였고, 2025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포 및 미사일 합동훈련(5.8), 특수부대 및 탱크병 훈련(5.13), 공군 전술훈련(5.15), 대연합부대 포사격 경기(5.29)를 실시하였다.²⁸⁾ 또한 쿠르스크 파병 전훈을 바탕으로 특수전 부대의 무장 현대화와 훈련을 강조하는 등 실전 중심 사고가 제9차 당대회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²⁹⁾ 김정은이 ‘전쟁할 수 있는 인민군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사상 무장을 강조하였다. 2025년 2월 24일 김정은은 김일성 정치대학 창립 80주년 계기 방문에서 “군인,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앞세우고... 그 다음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군사기술 장비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³⁰⁾ 김정은은 작년 7월 24일 “가장 확실한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실전훈련’과 연계하였는데,³¹⁾ 이러한 사상 무장 강조는 러시아 파병과 적대적 2국가 노선이 구현되는 시점에서, 북한군의 흔들림 없는 정신전력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주적관’과 ‘계급 교양’ 등 사상 무장을 강조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 “총비서 동지를 옹호, 보위, 총비서 동지에게 절대 충성”하고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영원한 강국 조선을 건설”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²⁾

정리해 보면, 북한의 ‘실전’과 ‘전쟁수행 전략’의 강화는 ‘핵’과 ‘재래식’을 분리한 이분법적인 전쟁관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공언한 대로 핵-재래식 병진을 내세우며 전력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 운용’에서도 병진과 통합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실제 위기 시 핵 그림자하 재래식 강압, 또는 반대로 재래식 충돌의 핵 확전이라는 복잡한 위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3. 적대적 2국가 노선의 군사적 구현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2국가, 영토평정’ 노선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27)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강건 명칭 종합 군관학교 현지 지도」, 2025. 2. 26.
 28)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병종별 건설 종합훈련 참관」, 2025. 5. 14.
 29) 『노동신문』, 「김정은, 군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 2025. 8. 28.
 3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김일성 정치대학 현지 지도」, 2025. 2. 25.
 31) 『노동신문』, 「김정은,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 사격훈련경기 참관」, 2025. 7. 24.
 32) 『조선중앙통신』, 「정전협정 체결일(7.27)관련 동향」, 2025. 7. 26~28.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국경 요새화’로 가지화되고 있다. 2024년 초부터 북한은 최전방 MDL 인근에서 일일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도로와 교량 설치,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콘크리트 방벽, 철조망 장벽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2025년 6월에는 북한이 일일 8,000~10,000여 명 이상의 작업 인원을 동원하여 10개 지역에서 철책 작업과 장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³³⁾ 2025년 7월 9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24년 6월 이후 연천,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지역에서 총 11차례(6월 4회, 8월 1회, 9월 2회, 10월 2회, 4월 2회)에 걸쳐 북방한계선이 아닌 MDL 3~4m를 침범하여 장벽을 설치하였다.³⁴⁾

한편,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확정하려는 의도도 피력하였다. 북한은 2025년 “해상주권을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중간계선 해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나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군사적 신뢰 구축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2025년 북한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화해 협력 정책 시도에 대해 적대적 2국가 노선을 그대로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⁵⁾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³⁶⁾ 이어서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을 준비해 달라”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주문하였으나,³⁷⁾ 북한은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토평정’을 제시하며 남북 평화통일 논리 해체와 더불어 핵 사용 정당성과 유사시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제9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군사 긴장 수위를 상시로 높이는 전략적 포석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집초공격(특정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여 초토화)’ 전략과 전방 지역 전력증강이다. 국경 요새화와 결합된 전방 화력 증강은 단순한 방어조치가 아니라 유사시 수도권과 한국 내 주요 표적을 압박할 수 있는 추진 배치된 강압 수단의 체계화를 뜻한다.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 직전인 2026년 2월 18일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강력한 ‘집초식 공격무기’이자 ‘특수한 공격에도 수행에도 적합화’된 무기라고

33) 『조선일보』, 「북 유엔사에 국경선화 작업 통보... 하루 1,000여 명 투입」, 2025. 6. 30.

34) 『문화일보』, 「서부전선 북한군 방벽, MDL침범 3~4m 남쪽에 설치 의혹... 정전협정 위반」, 2025. 7. 19.

35)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미 담화」, 2025. 7. 29.

36) 『경향신문』,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첫 언급...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25. 8. 17.

37) 『경향신문』, 「이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 9.19북원 구체화」, 2025. 8. 18.

규정하였고,³⁸⁾ 2월 27일에도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 개량을 강조하면서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파괴적이며, 대량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전쟁억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였다.³⁹⁾ 좀 더 나아가 김정은은 3월 15일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타격 훈련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에게는 불안정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⁴⁰⁾ 이것은 방사포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최근 군사 행보는 ‘완전한 적대적 2국가’ 상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 북러 군사협력 기반의 군사현대화 추진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북러 관계가 북한 국방전략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전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첨단’ 무기 개발의 야심찬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이면에는 공고한 북러 군사협력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새롭게 내놓은 ‘새 5개년 계획’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전제되어야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시아 군사기술 지원은 북한 핵개발에서 난제로 남아 있던 ICBM 재진입 능력의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2023년 9월 공개한 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용함)으로부터 2025년 12월 공개한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과시하는 것도 러시아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부터 소형원자로 제작기술 지원을 받을 시 전력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¹⁾

또한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장비 현대화의 도약적 진화를 견인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해군 핵 무장화와 원양함대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 토대는 러시아 지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해군 신형함정에서 러시아형 무기체계(센서, 미사일, 방공체계 등)와 구조적 유사성이

38) 『조선중앙TV』,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 대회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 진행」, 2026. 2. 19; 『문화일보』, 「화해 맞나? 방사포 50문 내놓은 김정은… 남한 전 지역에 250발 동시발사 가능」, 2026. 2. 19.
39) 『노동신문』, 「김정은, 미사일 총국이 진행한 갱신형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 시험사격 참관」, 2025. 2. 28.
40) 『연합뉴스』, 「북 방사포 타격 훈련… 김정은 420km 사정권 내 적들에 불안 줄 것」, 2026. 3. 15.
41) 『Radio Free Asia』, 「한국, 북 핵잠 건조 첫 공개에 러 기술이전 가능성 주시」, 2025. 3. 10.

확인되는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과거에 자원과 기술 부족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해군 및 공군 전력 현대화는 러시아 지원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산 탄약과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노후화된 탄약과 장비의 퇴역 및 신형 장비 교체에 따라 북한군의 전반적인 무기 장비 현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 군수공업 설비와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군사 지원을 기반으로 한 북한군의 현대화 노력을 ‘군사혁신’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이 기술적 측면의 획기적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과 교리의 혁신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전쟁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⁴²⁾ 북한의 무기 현대화 시도가 정말 군사혁신으로 확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현대전을 고려한 전력체계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IV.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전략이 ‘핵·재래식 병진’을 핵심 축으로 하는 실전적 전쟁수행 역량과 전략체계의 구축에 중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군사노선은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재확인하고, 대미 강경태세를 강조하며 한국을 ‘변함없는 적대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등 기존 정책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의 국방전략이 현상 타파를 위한 여건 조성에 목표를 두면서 ‘전쟁할 수 있는’ 실전적 전력 건설과 공세적 군사전략을 동시에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적이고 상시적 위기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 행보는 더욱 공세적이고 자의적 핵 운용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영구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다각적 군사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는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대외정책의 구조적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42) Marshall, Andrew W. *Strategy as a Profe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93, pp.1.; Krepinevich, Andrew F. "Cavalry to Computer: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e National Interest*, no. 37, 1994, p.30.

43) 김정은, 「노동당 제9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6.

북한이 대미 강경 태세를 견지하면서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다. 북한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협상 쟁점은 핵무기 감축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실전 배치, 전방 화력체계, 대남 적대 노선, 핵·재래식 통합 운용 문제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더욱이 2026년 2월 28일 제9차 당대회 직후 감행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장대한 분노(Epic Fury)’는 북한의 핵개발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참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대도시에 대한 선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2의 장대한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경우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북러 밀착을 통한 전력증강의 지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긴밀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핵잠수함, 항공 기술 등을 보완하며 5개년 계획의 달성 속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핵탄두 성능 개량 시험과 ICBM 전력화를 위한 시험 발사 등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경제적 악조건하에서도 체제 생존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과 신형 무기 시험을 지속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노선과 ‘남부 국경선’ 요새화, 전방 화력체계 증강 배치의 노선은 핵 위협과 재래식 압박이 전·평시를 관통하여 상시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한 방사포의 전방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국지적 분쟁 상황에서도 핵 카드를 활용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전면전 개시 이전에도 핵을 배경으로 국지적 군사도발, 전방 압박, 미사일 시위, 전자전·무인기 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정책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제9차 당대회의 중요한 함의는 단순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핵 공갈과 재래식 강압이 더 정교하게 결합한 복합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전개와 전망은 한국에 냉정한 상황 평가와 신중한 위기 관리 및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북한 전략에 대한 평가에 있어 냉철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비록 지상·수중 발사형 ICBM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 공격체,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등 매우 야심에 찬 전력증강 계획을 제시했지만, 5년 내 성과 달성에는 상당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600mm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배치, 교육훈련 강화, 정찰·전

자전 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수중전략자산이나 고난도 첨단체계는 지연되거나 제한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민수 경제의 피해를 가속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에 따라 북러 협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대응은 냉철한 상황 판단을 기초로 긴장 완화와 도발 억제를 병행하는 균형 있는 접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한미 간 통합 억제 발전과 함께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사회적 복원력 강화, 전방 지역의 위기관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격차 유지, 연합방위의 작전체계 심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는 ‘핵과 재래식’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통합 억제, 그리고 국가 복원력의 강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위기관리에 소홀함이 없으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적 우위가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남북 간 경쟁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보미, 「제9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전환: 핵무기 보유에서 운용으로」, 『이슈브리프』 제810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 김정은,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노동신문, 2026. 2. 26.
- 신범철, 「북한 제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 『세종포커스』, 서울: 세종연구소, 2026. 2. 27.
- Marshall, Andrew W., *Strategy as a Profe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93.
- Krepinevich, Andrew F., “Cavalry to Computer: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e National Interest*, no. 37, 1994.
- 『경향신문』,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첫 언급...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25. 8. 17.
- 『노동신문』, 「김정은, 미사일 총국이 진행한 갱신형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 시험사격 참관」, 2025. 2. 28.
- _____, 「김정은, 중요조선소 함선 건조사업 현지지도」, 2025. 3. 8.
- _____, 「김정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및 탐지전자전연구집단 지도」, 2025. 3. 27.
- _____, 「김정은, 중요 탱크 공장 현지지도」, 2025. 5. 4.
- _____, 「김정은,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 사격훈련경기 참관」, 2025. 7. 24.
- _____, 「김정은, 군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 2025. 8. 28.
- 『문화일보』, 「서부전선 북한군 방벽, MDL침범 3~4m 남쪽에 설치 의혹... 정전협정 위반」, 2025. 7. 19.
- _____, 「화해 맞나? 방사포 50문 내놓은 김정은... 남한 전 지역에 250발 동시발사 가능」, 2026. 2. 19.
- 『연합뉴스』, 「김정은, 핵무기 늘리고 수중 발사 ICBM 및 위성 공격 특수자산 개발」, 2026. 2. 26.
- _____, 「북 방사포 타격 훈련... 김정은 420km 사정권 내 적들에 불안 줄 것」, 2026. 3. 15.

- 『조선일보』, 「북 유엔사에 국경선화 작업 통보... 하루 1,000여 명 투입」, 2025. 6. 30.
_____, 「우크라이나 파병부대 앞세우고 열병식... 중앙 연단에 김주애」, 2026. 2. 27.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건군절 77년 계기 국방성 방문」, 2025. 2. 9.
_____, 「김정은, 김일성 정치대학 현지 지도」, 2025. 2. 25.
_____, 「김정은, 강건 명칭 종합 군관학교 현지 지도」, 2025. 2. 26.
_____, 「김정은 병종별 전술 종합훈련 참관」, 2025. 5. 14.
_____, 「정전협정 체결일(7.27) 관련 동향」, 2025. 7. 26~28.
_____,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미 담화」, 2025. 7. 29.
_____, 「김정은,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 참관」, 2025. 8. 24.
_____, 「방미 중 대통령 발언 관련 조선중앙통신 비난 논평」, 2025. 8. 27.
_____, 「김정은,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 2025. 9. 13.
_____,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사업 지도」, 2025. 9. 19.
_____, 「김정은 위원장, 핵 관련 분야 중요협의회 진행」, 2025. 9. 27.
_____, 「김정은 위원장,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 참석 및 연설」, 2026. 2. 19.
- 『조선중앙TV』,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 대회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 진행」, 2026. 2. 19.
- 『Radio Free Asia』, 「한국, 북 핵잠 건조 첫 공개에 러 기술이전 가능성 주시」, 2025. 3. 10.

<웹사이트>

- Bernal, Gabriela.,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re Here to Stay.” Lowy Institute, March 6, 2026.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north-korea-s-nuclear-ambitions-are-here-stay>. accessed March 10, 2026).
- King, Robert., “What the Ninth Party Congress Tells Us About Where North Korea Is Headed.”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6 Feb. 2026.
(<https://keia.org/the-peninsula/what-the-ninth-party-congress-tells-us-about-where-north-korea-is-headed/>. Accessed 10 Mar. 2026).